

하이투자증권 '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'



하이투자증권(사장 김경규)은 혁신과 고부가 소비를 창출하는 글로벌 1등기업에 장기투자하는 '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'를 추천한다고 밝혔다.

이 펀드는 지난 2008년 7월 7일에 설정된 이후 전체 설정액 4천569억원, 설정 후 누적수익률 300.4%를 기록하고 있다. 직전 3개월 수익률은 11.2%이고 6개월 수익률은 44.7%의 성과를 내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촉발된 글로벌 주가 하락 이후에도 수익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(9월 18일, C클래스 기준)

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는 글로벌 선진시장 및 주요 신흥국 증시에 상장된 1등기업,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기업, 신흥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고부가 소비재 관련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.

또 글로벌 선진시장 중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, 주요 신흥국 증시의 경우 중국 및 대만 등 국가에 투자한다. 이같이 글로벌시장 중에서도 선진국 및 신흥국에 분산투자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비하고 있다.

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는 미국 시장 비중이 59%로 제일 높으며 테슬라,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, 알파벳(구글), 마이크로소프트, 넷플릭스 등의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. 골드만삭스, JP모건 등 금융주, 유나이티드헬스 같은 건강보험 관련 주식, 비자 및 스

타벅스 같은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도 투자하고 있다. 또 케어링(KERING), 루이비통모에헤네시(LVMH), 에르메스(HERMES), 프라다(PRADA), 로레알(L'OREAL) 등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소비재 비중이 높은 유럽주식에 19%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소비회복에 대비하고 있다. 텐센트(TENCENT), 알리바바(ALIBABA), 토요타(TOYOTA) 등 중국, 일본 등 아시아에도 12%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. (2020년 9월 4일 기준)

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는 1등 기업 장기투자 컨셉에 맞춰 환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시장 상황 및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환 해지 비율을 조절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원-달러 또는 원-유로, 원-홍콩달러 간 변동성이 확대해도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.

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"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펀드 성과를 추구하는 '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'가 저금리 시대에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"면서 "펀드 내 주요 자산이 IT, 소비재, 헬스케어 중심이고 미국 성장주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는 만큼 시장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나 투자자산 내 포트폴리오 배분,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장기투자 등을 추천한다"고 밝혔다. ▼